

출애굽 당시의 왕은 누구인가?



인간의 자리
2010. 3. 8. 12:51

이웃추가

03. 출애굽 당시의 왕은 누구인가?

오늘은 성경공부 3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지난주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 명의 족장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야곱일행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지난 주 성경공부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로부터 약 430 년이 지난 후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버린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들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면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공부하시기 전에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올 때, 출애굽 당시의 이집트 왕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자료 1_이집트지도)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집트의 지도입니다. 우선 이집트 왕조를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눌 수 있는데 상이집트의 수도는 테베(지금의 룩소르)였고, 하이집트는 현재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부근에 있는 멤피스였습니다. 이집트의 역사에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통일되었던 시기는 왕국이 안정적이던

시기였고, 분열되었던 시기는 중간기라고 불리는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역사에서는 이런 중간기가 세 번 등장합니다.

연대산출

➤ 솔로몬 재위: B.C. 970년

➤ 출애굽 B.C. 1446년

(왕상 6:1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사백 팔십 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사 년째 되는 해 시브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 야곱의 애굽행 B.C. 1876년

(출 12:40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사백 삼십 년이었다)

(자료 2_연대산출) 우선 출애굽이 언제쯤 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분명한 솔로몬 재위연도가 B.C.970 년입니다.

[왕상 6:1-왕상 6:1]

(1)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사백 팔십 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사 년째 되는 해 시브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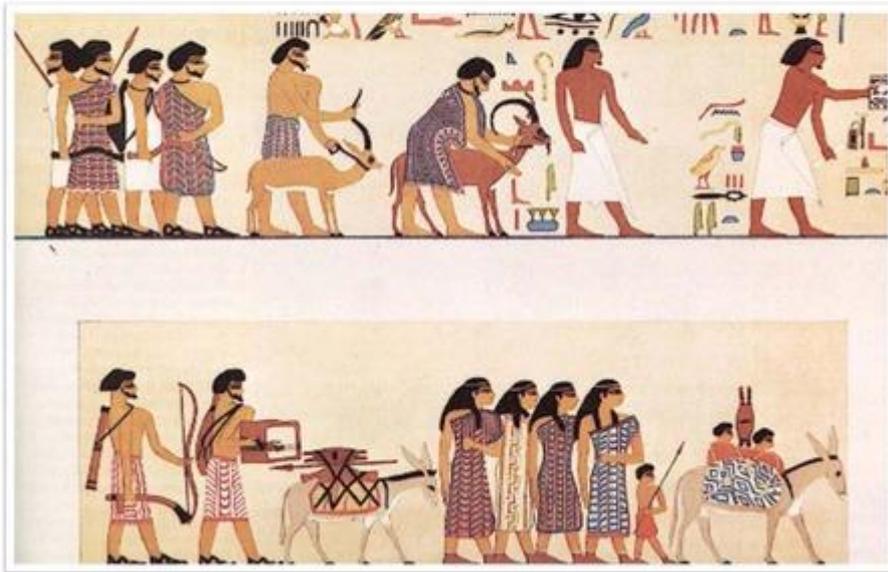
여기에 따르면 솔로몬이 B.C.966 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480 년 전인 B.C.1446 년에 출애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 년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온 것이 B.C.1876 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왕조

1. 왕조이전 시대
2. 고왕조(약 3100 B.C. ~ 2200 B.C. 1-6왕조):
기자의 피라미드, 수도 멤피스
3. 제1중간기.....(7-11왕조 전반기, 분열)
4. 중왕조 (2050 B.C. ~ 1800 B.C., 11왕조 후반-12왕조):
수도 테베(현재의 룩소르)
5. 제2중간기.....(13-17왕조, 분열):
1700년경부터 히소스 침입(15-16왕조), 요셉 시기
6. 신왕조(1550 B.C. ~ 1100 B.C., 18-20왕조): 출애굽 시기

(자료 3_이집트 왕조)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 연도가 B.C.1446 년이라면 당시는 이집트 18 왕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18 왕조는 어떤 왕조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집트의 제 2 중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2 중간기는 13 왕조부터 17 왕조까지를 말하는데 특별히 15-16 왕조는 이집트인들에게 매우 치욕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5-16 왕조는 이집트왕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히소스라는 민족에서 이집트가 오랜 시간 식민지배를 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크눔호텝의 벽화(B.C.1900)



(자료 4_크눔호텝 벽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이 이집트를 자유롭게 오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 것이 1824년 영국의 고고학자 윌킨슨(G.Wilkinson)은 이집트 중부 지방의 한 유적지인 베니 하산에 있는 절벽의 중턱에 만들어진 바위굴 무덤들을 조사하다가 크눔호텝이라 불리는 한 귀족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안에는 지금 보시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 그림에는 이집트인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독특한 턱수염과 화려한 무늬로 짜여진 통치마를 걸친 37명의 학소스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집트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학소스인들 중에 산양의 머리를 붙들고 있는 인물이 두목인데 이름이 '아비샤'라고 벽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벽화가 약 기원전 1900년 경인데 성경의 족장시대와 겹치는 시대입니다. 다시말해 족장들이 이집트를 왕래했다는 것이 이 벽화를 통해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소스인들이 이집트를 점령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왕이 12왕조의 세소스트리스 2세(B.C.1897-1878년)였습니다. 이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약 430년을 보내게 되는데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이집트에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번성하던 시기가 바로 학소스 통치기간입니다.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고, 정부와 협력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곱(야콥-헤르)의 스키타르 도장



(자료 5_야곱의 도장) 그래서 힌소스 왕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인들의 이름과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보이는 힌소스 왕조의 제 2대왕의 도장인데 여기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평화는 출애굽기 1 장 8 절에 등장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과연 이 왕은 누구였을까?

(자료 6_성구) [[출 1:8-출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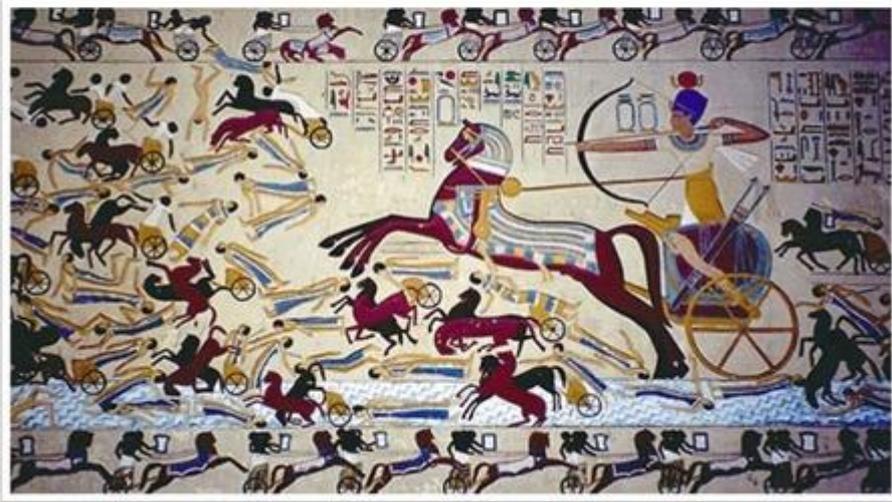
(8)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9)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10)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11)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다.

아모세1세의 힉소스 전쟁 벽화



(자료 7_아모세 1 세의 벽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한 이집트 18 왕조의 창시자인 아모세 1 세를 가리킵니다. 이 역사를 알면 아모세 1 세때부터 이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고 박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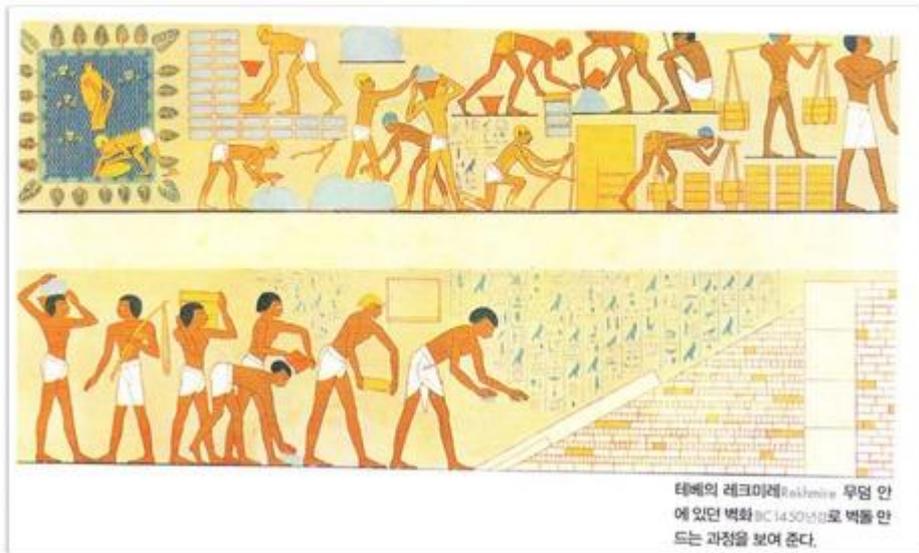
아모세 1세의 미이라 (델엘바흐리 은닉장소에서발견)



(자료 8_아모세 1 세의 미라)

(10)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레크미레 벽화(B.C.1450)_벽돌 만드는 과정



(자료 9_레크미레 벽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모세 1 세가 즉위하는 B.C.1570 년 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제18왕조 역대 왕

아모세

아멘호텝 1세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2세(부인 하트셉수트)

투트모세 3세

제18왕조		
왕	연대(BC)	주요 사건들
아모세 아모시스	1570-1546	실리수에서 릭소스 축출, 알렉산드리아의 릭소스 요새 공격, 누비아 정복 시작
아멘호텝 1세 아멘호텝	1546-1526	이집트의 지배가 누비아를 넘어 남쪽까지 확장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1525-1512	이집트 군에 이끌고 유포라티스 강까지 진출, 대개 서쪽에 있는 종족의 공격기에 무덤을 건축한 첫 번째 왕
투트모세 2세 투트모세	1512-1504	방위해 동차와 업적을 남기지 못한
하트셉수트	1503-1482†	남편 투트모세 2세의 죽음으로 집사 권력을 한 여왕
투트모세 3세 투트모세	1504-1450	미완나 왕국을 정복하기 위해 황제전으로 히스판 16년에 알렉산드리아의 시리아 정복
아멘호텝 2세 아멘호텝	1450-1425	필레스타인식 기 외 지역이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 지중해 연안 지역에 119개의 도시를 건설, 그것들에 두 차례에 걸쳐 공격
투트모세 4세 투트모세	1425-1417	
아멘호텝 3세 아멘호텝	1417-1379	제18왕조의 정정기를 장식한 왕, 대담한 건축물 건설
아멘호텝 4세 아케나텐 아멘호텝	1379-1362	불멸 아티몬나 문사에서 아텐신을 숭배한 이교도 왕으로 기리, 아티몬나 문서는 주로 이 시대에 기리, 아케나텐 Akhenaten이라는 새로운 수도 건설
스멘카레	1364-1361†	아케나텐의 아들 아텐 키라틴 계승자
투탕카멘 투탕카멘	1361-1352	아텐 숭배를 포기하고 아텐 신 숭배로 전환 수도 아케나텐을 버리고 테베에 돌아감
아이	1352-1348	젊은 9살에 쿠데타에 오른 구 왕위
호렘하브	1348-1320	투탕카멘의 장모이며 군사 지도자, 이집트 내부 권력을 다지고 새로운 왕조를 열게 함

(자료 10_제 18 왕조 역대왕) 그리고 아모세를 이어 아멘호텝 1 세, 투트모세 1 세 때에 이르러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이름이 왜 모세일까? 역대 왕들이 이름이 모두 모세입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이름은 사실 이집트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식 이름을 히브리말로 하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출 2:10)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버려진 모세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삼은 이집트의 공주가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동화같아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18 왕조 투트모세 1 세의 딸이었던 하트셉수트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모세의 어머니라고 소개된 이집트의 공주가 하트셉수트라고 생각합니다. 하트셉수트는 세계사에서 손꼽히는 강력한 여성군주입니다.

하트셉수트 여왕(1479-1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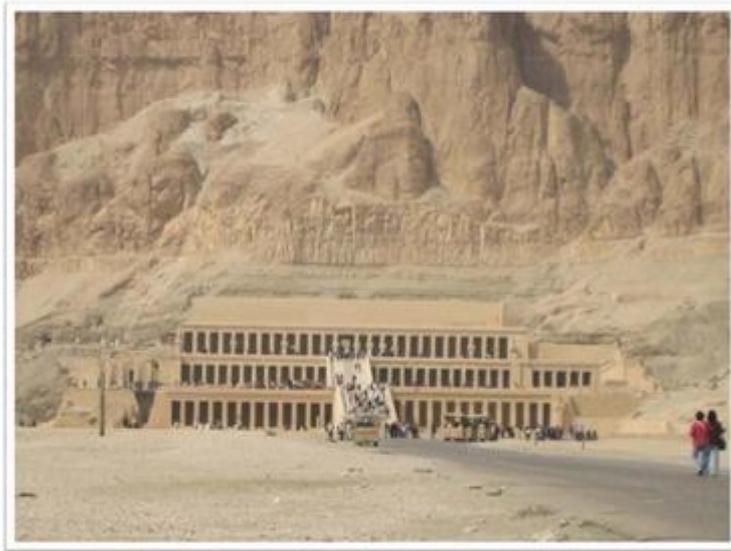
하트셉수트 여왕 장례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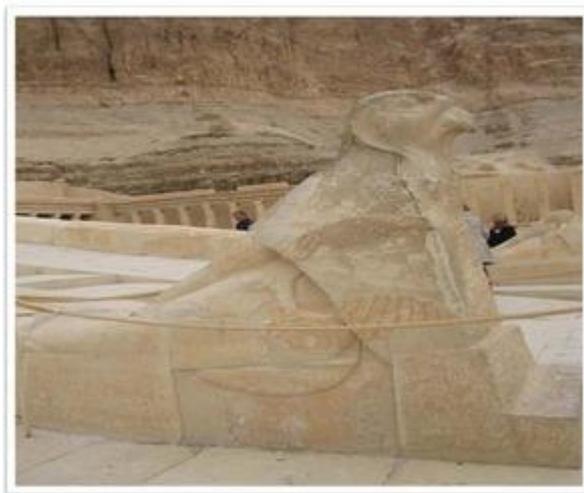
하트셉수트 여왕 장례신전



하트셉수트 여왕 장례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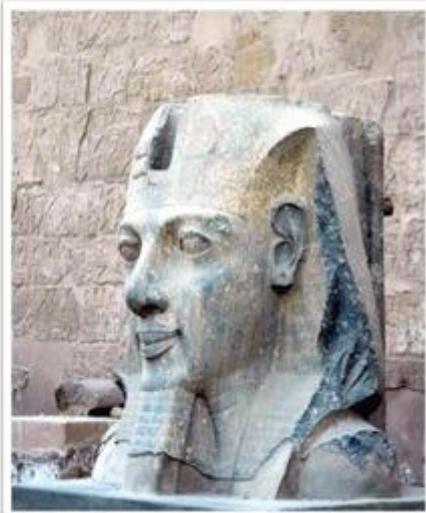


하트셉수트 여왕 장례신전(태양신 호루스)



(자료 11_15 하트셉수트) 투트모세 1 가 죽고 하트셉수트는 어머니가 다른 어린 동생뻘인 투트모세 2 세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병약했던 투트모세 2 세를 대신해서 이집트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투트모세 2 세가 재위 14 년만에 죽게됩니다. 그래서 하트셉수트는 자신의 딸인 네페르라를 결혼시켜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당시 6 살이었던 투트모세 3 세입니다.

투트모세 3세와 람세스2세



(자료 16, 투트모세 3 세) 훗날 투트모세 3 세는 이집트의 나폴레옹 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절대군주입니다. 하지만 투트모세 3 세는 29 살이 될 때까지 23 년간 하트셉수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을 뿐이고, 그 만큼 하트셉수트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트셉수트와 관련된 초상, 이름 등을 다 없애버립니다. 아마 모세가 이집트에서 쫓겨난 시기가 하트셉수트가 실각하는 시기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 때 모세의 나이가 40 세였습니다.

(자료 17) [행 7:23-행 7:23]

(23)나이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자료 18) [출 2:23-출 2:23]

(23)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모세가 하트셉수트가 실각하면서 이집트에서 쫓겨날 때가 40 세이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이 80 세입니다. 그러니까 약 40 년을 광야에서 보낸 것인데 출애굽기 2 장 23 절에 따르면 “애굽 왕”이 죽은 후에야 비로서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이 말은 투트모세 3 세가 권력을 잡은 이후에 40 년간 이집트를 통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놀라운 것은 이집트 수천년의 역사동안 이집트를 40 년 이상 단독으로 통치했던 왕은 18 왕조의 투트모세 3 세와 19 왕조의 람세스 2 세 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성경과 역사의 일치입니까?

아멘호테프 2세



(자료 19_아멘호테프 2 세) 그렇다며 출애굽 당시의 왕이 누구였을까? 투트모세 3 세의 뒤를 이은 아멘호테프 2 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트모세 3 세때까 지 강력했던 이집트가 아멘호테프 2 세때에 와서는 급격히 쇠퇴하면서 각지에서 반란이 잦았습니다. 출애굽과 관련해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트모세 4세의 꿈의 비석



(자료 20_스핑크스와 꿈의 비석) 더 재미있는 것은 아멘호테프 2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투트모세 4세인데, 투트모세 4세는 화강암 비문을 만들어서 그림과 같이 스핑크스 발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투트모세 4세가 아직 왕자였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사막에 사냥을 나갔다가 잠시 쉬는 사이 깜짝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 스핑크스가 나타났다. “나는 이 모래 속에 묻혀 있다. 괴로워 죽겠으니 어떻게든 모래를 치우고 날 꺼내다오. 그렇게 해 주면 너를 이집트의 왕으로 만들어 주마.” 잠에서 깬 왕자는 즉시 부하들을 모아서 모래를 다 치워 주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스핑크스는 약속대로 투트모세 4세를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 비문의 내용을 보면 투트모세 4세가 정통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멘호테프 2세의 왕위 계승자는 10번째 재앙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왕위 계승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투트모세 4세는 지금 이런 과정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이런 비문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출애굽 당시의 왕은 제 18 왕조의 아멘호테프 2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여러 유력한 이론들 중에서 제가 지지하는 하나의 설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오경의 내용이 우리가 고대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매우 사실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 과정을 선생님들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